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으로 시민 편의 높인다

전주시, 2026년까지 에코시티·효자4동·평화1동 총 3개소 순차적 건립 추진

전주 곳곳에 행정·문화·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속속 들어선다.

시는 지난 7월 문을 연 전주시 혁신동 주민센터에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과 문화, 복지 등의 공공 편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에코시티와 효자4동, 평화1동 등 3곳에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존 행정과 복지 중심의 주민센터를 주민 생활 거점인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는 것은 우범기 전주 시장의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는 편의시설 분포와 청사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곤역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동 주민센터에 이어 내년 4월에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

국비 60억 원과 시비 162억 원이 투



전주 곳곳에 행정·문화·복지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속속 들어선다. 사진은 우범기 시장이 지난 7월 혁신동 주민센터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입돼 송천동 에코시티 부지 내 들어서는 기존 주민센터 기능은 물론, 수영장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다함께돌

봄센터, 주민문화공간 등의 기능이 더해져 인근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현재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되는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능이 포함되며, 시는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평화동 1가 500-6번지 일원에 도비 21억 원을 포함한 총 27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200㎡의 규모로 주민센터와 청소년센터, 다목적강당, 조리실 등을 갖춘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센터가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신하면서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행정·복지·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문화를 복원·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지역 농생명기업과 미래 스마트팜 기술 성과 공유

전주시가 미래 스마트팜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농생명기업들과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공유했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호)은 지난 19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3년 SW융합클러스터 2.0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과제를 수행한 18개 기업과 전북지역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W융합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우수성과 발표' 시각에는 △(주)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19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SW융합클러스터 2.0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과제 공유 및 의견 청취 △기업 간 소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수성과 발표 시간에는 △(주)

엔티스의 '승용형 농기계 사고 실시간 감지'를 위한 운행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 △㈜셀스게임즈의 '직교형 로봇

작물 재배 장치 연동 체험형 스마트팜 구축' 등 총 5개사가 사업화 성공사례를 참여기업들과 공유했다.

이와 관련 박데리터 기반의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북의 농생명 특화산업과 소프트웨어(SW) 융합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영호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로 스마트팜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은 "SW융합클러스터 2.0은 지역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 분야의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며 앞으로도 농생명 산업이 지역의 미래 신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을 보면 보람이 느껴져 나눔을 계속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하는 전주청과물(주)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박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매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전주청과물(주) 지준식 대표님께 깊은 감사 드린다"면서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더 많은 단체에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청과물, 취약계층 위한 쿨 450박스 기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립'(이사장 윤박섭)은 20일 전주청과물(주)(대표 지준식)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쿨 450박스(675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된 쿨은 송천1동(100박스)과 송천2동(150박스), 전주지역 25개 노인복지센터(200박스)를 통해 추운



온 나눔이지만 행복해하는 어르신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20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아동가구에서 주거환경개선 원료를 기념해 입주식을 가졌다.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 입주식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관·학 협력 지원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국립대 육성사업 일환 추진

체·태양광 설치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아동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의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이 학과 학생들이 실증부터 공간 개선안 도면 작업, 홍보물 제작 등 직접 실무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은주 전주시주거복지센터장은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겨울방학 독서 프로그램 '풍성'

전주시, 1월 5~31일 9개 시립도서관서 운영

전주시가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는 오는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9개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놀이와 책을 결합한 독후활동을 통해 책 읽기와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총 2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별 주요 프로그램은 △그림자극체험, 천연 핸드크림 만들기(꽃심) △무지개 반달떡, 배쓰밤 만들기(삼천) △딸기를 얹은 캔들, 고구마 빵 만들기(평화) 등이다.

겨울방학 특강의 세부 일정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 (lib.jeon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도서관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기업현장교육 → 현장실습 → 취업연계 → 지역 정착 까지

지역 기업과 함께 지역 인재를 키워가는

전라북도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 / 문의 1555-2019

※ 지역인재육성에 함께할 전북지역 기업의 관심과 연락을 기다립니다.

